

‘장애인식’ 개선 영화
‘모두의 영화’ 선보여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 한국장애인부모회 등과 함께 제작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단편영화 ‘모두의 영화’를 선보인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모두의 영화’는 씨네필(감독 최은, 주연 이주필·김종욱), ‘난 세시부터 행복해질 거야’(감독 유은정, 주연 장혜정·사월), ‘재밌게 보세요’(감독 서은선, 주연 원희승·주예린) 등 총 3편의 영화를 묶은 단편영화 시리즈이다.

이 영화는 시나리오 집필 단계부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작품으로 지나치게 교육적이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많은 자문을 받아 제작됐다.

‘모두의 영화’는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을 포함한 가치불 버전과 일반 버전으로 제작돼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관공서를 비롯해 기업체, 학교 등 누구나 무료로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영진위는 전했다.

무안어울림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무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일 전체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기’를 주제로 무안어울림오케스트라 공연과 함께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정명인 팀장을 초빙하여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했다.

무안어울림오케스트라의 연주

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더 나아가 장애공감문화를 형성하였다.

정재철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다름을 인정하는 건강한 직장 내 분위기 조성과 장애인 고용률 제고

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안어울림오케스트라”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학생, 학부모와 교사 37여명을 단원으로 2015년 창단됐다.

무안=이가성 기자



“걷는 것으로 기부”...선한 영향력 ‘앱·게임’ 뜬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플레이 개발자와의 대화’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소셜 임팩트 앱 개발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정지현 앱 비즈니스 수석부장, 전유택 에누마 지사장,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 김재현 (주)당근마켓 공동대표, 장태원 빅워크 대표이사, 임형준 구글플레이 앱 비즈니스 차장.

최근 교육, 환경, 장애인 접근성, 사회 공헌 등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앱·게임이 주목받고 있다. ‘소셜 임팩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말한다.

구글플레이는 최근 개발자와 대화 행사를 통해 소셜 임팩트 앱 개발사를 소개했다. 행동형 기부 솔루션 ‘빅워크’,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환경에 상관없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돕는 교육 솔루션 ‘도도수학’,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 동네 직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세상에서 가장 고효율택시 ‘코액터스’ 등이 대표적이다.

빅워크는 개인의 ‘걸음’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시키고 ‘걸음’이라는 행위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동형 기부 솔루션이다.

도도수학은 유치원에서 2학년 수준의 커리큘럼을 게임처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8개의 언어를 지원하며 전 세계 700만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도도수학’을 개발한 에누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위치한 에듀케이션 스타트업이다. 이수인, 이건호 대표는 엔씨소프트 게임 개발자 출신으로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도 스스로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도수학, 킷킷스를 개발했다.

특히 에누마는 2014년부터 5년간 진행된 문맹 퇴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 ‘걷는 것만으로 기부가 된다?’ 2012년 만들어진 ‘빅워크’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걸기만 하면 걷지 못하는 이들에게 의족, 생계 지원 등 기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94만명의 사용자가 함께 지구 497바퀴에 해당하는 20만km를 걸었다. 90만 이상의 누적 다운로드와 월 방문자 수 15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 2014년 출시된 ‘도도수학’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학교육 앱이다.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도 스스로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제품을 만든다는 것을 모토로 만들어졌다. 3~7세 대상의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미국 1,400개 교실에서도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해 다양한 접근성 옵션도 제공하고 있다.

행동형 기부 솔루션 ‘빅워크’ · 청각장애인 운행 고용한 택시 ‘코액터스’
에누마 ‘킷킷스쿨’ · 문맹 퇴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경연대회서 공동우승

어 경연대회 ‘글로벌 러닝 익스플라이즈’에서 킷킷스쿨의 높은 학습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5월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미국의 K9 벤처스, 소프트뱅크 벤처스 아시아, 중국의 탈에듀케이션그룹, 한국과 미국의 소셜 임팩트 펀드로부터 약 900만 달러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고효율 택시는 택시 안에서 청각장애인 택시기사와 승객 간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기사와 승객은 택시 안에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목적지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서로

전할 수 있다. 고효율택시는 SKT 티맵택시와 협업해 운전 기사와 승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코액터스는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인액터스’ 동국대 지부 학생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회사다.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는 “한국에 청각장애인이 30만 명이나 되지만 취업률이 40%에 그치는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코액터스의 목표는 청각장애인 택시기사를

더 많이 모집하고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신 근처의 ‘마켓’이라는 의미를 가진 당근마켓은 지역 주민과 중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이다. 중고거래, 지역업체, 질문답변, 부동산, 구인구직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 정보가 교류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 및 정보 서비스를 지향한다. 당근마켓은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 600만, 월 방문자 250만명을 돌파했다.

뉴스

발달장애인 3인방 주축 ‘ICT인프라 에코 사업’ 키운다



행복ICT가 발달 장애인들의 미래 설계와 자립을 돕는 신성장 사업으로 ICT인프라 에코(IECO)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1일 밝혔다. 행복ICT는 2011년 행복나눔재단, SK C&C, SK텔레콤이 함께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시스템 개발과 운영·ICT 솔루션 개발 사업을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하고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지정한 사회적 기업이다.

직원 66명 중 41%인 2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리사이클링 사업 발굴을 통해 지체장애인 중심이었던 장애인 고용의 범위를 발달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행복ICT는 지난해 말 발달장애인과 ICT 사업 기반의 지속 성장 가능한 신규 사업으로 ‘ICT 인프라 에코 사업’을 선정했다. ‘ICT 인프라 에코 사업’은 기존 받은 노

후 노트북·데스크톱 등 ICT 기기를 재사용·활용이 가능하도록 리사이클링 과정을 거쳐 재판매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SK텔레콤·SK이노베이션·SK C&C·SK E&S·SK인포섹 등 SK관계사에서 노후 ICT 기기를 기증하고 있다.

최민우씨(22), 심창용씨(20), 김현진씨(20)는 업무에 투입된 지 2~3개월 만에 노트북·데스크톱 등에 대한 검수와 분류는 물론 ▲부품 탈거 ▲외장 클렌징 ▲부품 분해·조립 등의 전문 업무를 해냈다.

ICT 인프라 에코 사업팀 현장 관리자 이육선 매니저(50, 지체장애)는 3인방의 출퇴근을 돕고 업무를 지원해 왔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